

# 2008년 대한양돈협회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방향



정 선 현 전무이사  
(사)대한양돈협회

## 1. 2008년 양돈 전망

우리 양돈산업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화려한 고돈가기를 경험했으나 FTA 등의 개방 압력의 증가, 소모성질환으로 생산성 하락, 사료비의 폭등을 비롯한 다양한 위협요인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올해 돼지고기 가격을 전망해 볼 때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돼지고기 수입증가로 인해 지육 kg당 3천2백원(성돈 1백kg 기준 22만원) 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제곡물가격 폭등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총 20% 가량 추가인상이 예고돼 있는 만큼 양돈농가의 생산비는 kg당 3천5백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농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경영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고돈가 기간동안 이러한 위협요인을 대비한 시설개보수 및 MSY 17두 이상의 생산성 개선준비를 한 상위그룹의 농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소모성질환을 극복하지 못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사료가격 인상분과 늘어나는 가축분뇨처리비 및 인건비와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부채가 늘거나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새로 출범하는 정부 역시 한·미 FTA 국회비준 진행과 한·EU FTA 타결 및 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을 거침없이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리 양돈산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이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올해를 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소모성질환 극복, 국산돼지고기 차별화 등 양돈산업 3대 중점과제를 본격 추진하는 한해로 삼고 △FTA 시대,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 △소모성 질환 극복을 통한 생산성 향상(MSY13두 → MSY 18두),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지속 가능한 양돈업 정착, △양돈산업 중심체로서의 협회 역할 강화,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양돈자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개선 등을 목표로 올해 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다.

## 2. 양돈협회 주요 추진 사업

### 가. 돼지고기 자급률 설정 및 생산안정제 도입을 통한 농가 안정대책 마련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국내 돈가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국내 양돈산업은 돼지의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정부의 역할과 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양돈협회는 국민들이 가장 많이 섭취하는 돼지고기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을 설정하고 돼지 생산안정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양돈협회는 전국 도매시장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차액을 정부가 보전(재원 축발기금)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올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나. 한국형 '사료안정제도' 도입

연초 2008년에도 총 20% 가량의 사료 가격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고유가와 바이오 에탄올 이용확대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사료관련 지원대책은 사료회사 지원제도 일색으로 실제 사료가격 인하로 반영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양돈협회는 돼지고기 자급률을 유지하고, 국내 양돈생산 안정을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사료안정자금을 조성, 안정적인 사료곡물 수급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뿐만 아니라 사료가격 인하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농가의 사료자금 지원 등의 제도마련을 위해 범 업계차원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다.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확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가축분뇨 처리 사업 지원이 필요해졌다. 자원순환 방식만으로는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 가축



▲ 사진은 양돈협회 영광지부 가축분뇨 액비 살포 모습

분뇨 자원화 가능 물량 설정 및 환경부 공공처리 시설 등과 연계가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해 개정된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통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처리시설과 자원화를 병행하여 통합 처리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권역별 지역별 맞춤형 가축분뇨 처리정책이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양돈협회는 노후화된 개별 양돈농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가축분뇨 의무 성분검사 축소 등 지속적인 해양배출 감축에 따른 대안 마련과 함께 시군별 자연순환 경진대회 개최 확대 실시하고 경종농가와 액비 유통 연계센터 시범 운용 등을 통해 가축분뇨 퇴. 액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라. PRRS 안정화 및 돼지 열병 청정화 사업 추진

한·미 FTA 체결, 한·EU FTA 추진에 따라 돼지고기 수입 증가와 국내산 공급 과잉으로 인한 농가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돈열 청정화를 통한 대일수출 재개가 필요하다. 또한 소모성 질환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돈장 PRRS 청

정화와 양돈장 PRRS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돈협회는 PRRS 안정화 사업을 통해 소모성질환 극복해 MSY를 현 13두에서 향후 18두까지 끌어올려 생산성을 높이고, 이후 돈열 청정화를 통해 일본으로 수출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 완전 개방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PRRS 안정화 및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마. 농장 HACCP 컨설팅 사업 강화

양돈협회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돈장 HACCP 컨설팅 사업 강화 및 확대 실시를 위해 그간의 경험축적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HACCP 컨설팅 체제를 정비하고 협회 소속 HACCP 컨설턴트의 컨설팅 표준을 수립함으로써 양돈장 HACCP 컨설팅 대표기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된 양돈농장 HACCP 교육, HACCP 지정 농장 확대에 따른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과 국산 돼지고기 차별화

양돈협회는 올해 말부터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됨에 따라 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음식점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유통감시원의 음식점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산 돼지고기 차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 실시를 바탕으로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본 사업에 착수하여



▲ 양돈협회는 소모성질환 극복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PRRS 안정화 및 돼지 열병 청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국산 돼지고기 신뢰 구축 및 경쟁력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08년 소시모 인증 20개 우수 돼지고기 브랜드와 양돈협회 소속 일반 브랜드 혹은 비 브랜드 돈육 등을 포함한 약 120여개 업체로 인증제 대상업소를 확대 실시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본회를 중심으로 인증협의체를 구성하여 인증제 부여 및 기준 등 인증제 운영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사. 기타 제도개선 사항

양돈협회는 양돈농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도 축세 및 도축수수료 부가세 폐지와 함께 농지법 개정에 따라 축산도 농업의 일부분으로 간주되어 농지에 축사가 진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재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는 농사용(병)으로 사용중인 축산용 전기 역시 농사용 감으로 전환 등 양돈농가를 위한 세제 및 제도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3. 맺음말

2008년 새해를 맞이했다. 넉넉한 살림살이에 대한 새해 소망으로 희망에 가득차야 할 새해가 근심거리로 가득 차 있다. FTA 개방은 더욱 가속



▲ 양돈협회는 그간의 HACCP 컨설팅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컨설팅 체제를 정비하여 양돈장 HACCP 컨설팅 사업 강화 및 확대 실시를 할 예정이다.

화되고, 사료값 폭등, 돈가하락 등이 양돈농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나름대로 각 농장의 특성에 맞는 생존전략을 세워야 다가올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이 어려운 난국을 우리 양돈산업의 도약의 계기로 이를 위해 향후 5년 내 FTA 경쟁국과 경쟁이 가능한 사육시설, 제도 및 규제개선, 분뇨자원화, 교육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전 양돈인들이 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지혜와 힘과 의지를 모아 간다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양돈협회는 우리 양돈인들의 저력을 믿는다. 그동안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 양돈인들은 그때마다 하나하나 잘 극복해왔기 때문이다. 양돈산업 구성원 전체가 무엇보다 업(業)의 본질에 충실히 하고,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도전정신으로 양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준비하고 실천한다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로 돌아올 것이다. 양돈협회도 보다 나은 여건에서 양돈농가들이 양돈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양돈